여는 글 베토벤 황제 .wma

과거를 현재의 눈으로
보아서는 안되느니
더 낫다
고 단정할
자신 있으면
지난 눈으로 오늘을 바라 보라
그럴 수 없을 진데
낫다고
더 나불데지 말지어다

여는 마음

희개 바람
물 끌어
모래 타
나
흐르니

아침 붉게
스미어
이 내 설움
삼키려네

아 차차
이 섬아

언제

나

내려는고 (아차도에 들어 온 후 몇일 있다가)

여는 뜻

하나님으로부터

한 줄기 빛 내려와

나

진리 보네

진리가 나라 이루니

사람은 주님 섬기고

나

지혜 보네

지혜 펴지니

세상 안으로 말씀 울리며

나

소리 듣네

소리 커지니

아!

나

철학 이었어라

철학 땜에

하나님 깨닫게 된다면

나

이미 죽어 있어라

죽어 있으므로

하나님 뜻 이룬다면

아!

나

이미 살아 있어라(.....내가 철학하는 까닭..... 래, 1994, 3, 21)

여는 영혼

밤 울며

하늘 돌다

휘 솟어

떨어즐 때

붉은

진달래에 눈망울

앉아 드니

속 벌리다

보듬는 향

신음(呻吟)에 영혼, 빠져드네

어이할꼬

나

한 번 돌고

떠 돌며 둘

돌아 세 번 솟어

쓰러질끄아

깔깔.....1999,4,9,14:50,

여는 간구

2001년, 3월 31일, 오전 10시 17분

아차도에서,....

주님께 메달리나이다

지혜이신 여호와여, 메달리우게하소서.

주님만 생각하나이다.

몸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몸이 이끌리게하소서.

주님만 따르렵니다.

빛이신 여호와여, 비추이소서.

주님만 말하렵니다.

로고스이신 여호와여, 말하게하소서.

주님을 통해 쉬렵니다.

역사속에서 운행하시는 여호와여,

움직임을 통해 쉬게하소서.

주님의 뜻이어든

이 모든 것 허락하심을 통해

저를

살리시고.....

저의 죄악이 창궐하려거든

생명을 거두소서.....

주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시고

힘을 허락하소서.....

지쳤나이다

어리석나이다

무모하나이다!

43년 동안

생을 인도하신

나의 주님께

그러나

거는

아차도에서 2001년

지금

감사드리나이다.

몸의 껍닥이

영혼에 짓이겨져

으스러질때까지

오직

주님만을

이 모든 것을 통해

저에게

허락하소서.....